



삼국사기 아신왕 기사

/ 한국사데이터베이스(국사편찬위원회) /

1 개요

아신왕(阿莘王)은 백제의 제17대 왕으로 재위 기간은 392년~405년이다. 광개토왕의 남정(南征)에 맞서 싸웠으나 번번이 실패하고 많은 영역을 상실했다. 한성이 포위되고 광개토왕의 노객(奴客)이 되겠다는 맹세를 하는 등 굴욕을 당하기도 했다. 태자를 왜에 보내 화친하고 함께 고구려에 대한 설욕을 시도했으나, 이 역시도 실패하고 말았다.

2 가계와 즉위 과정

아신왕은 아방왕(阿芳王) 또는 아화왕(阿花王)이라고도 한다. 성은 부여(扶餘)이다. 제15대 침류왕(枕流王, 재위 384~385)의 맏아들이고, 어머니는 진씨(眞氏)이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는 제16대 진사왕(辰斯王, 재위 385~392)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으나, 침류왕의 아들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왕비에 대한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자식으로는 왕위를 계승하는 맏아들 전지왕(腆支王, 재위 405~420)이 있다. 그밖에 아신왕의 둘째 동생 훈해(訓解)와 막내 동생 설례(磔禮)가 있는데, 이들은 아신왕 사후 태자인 전지와 왕위계승전을 벌인 인물들이다. 392년부터 405년까지 13년간 백제를 통치했다.

아신왕은 백제의 수도인 한성(漢城)의 별궁에서 태어났다. 정확한 연대를 알 수는 없지만, 근구수왕(近仇首王, 재위 375~384) 말년으로 추정된다. 아버지 침류왕의 재위 시절에 일찌감치 태자로 책봉되었다. 그러나 침류왕이 즉위 2년 만에 사망하자 나이가 너무 어려 왕위에 오를 수 없었다. 대신 침류왕의 동생인 진사왕이 먼저 왕위에 올랐다. 그리고 진사왕이 8년 만에 죽자 아신왕이 즉위하게 되었다. 관련사료

그런데 침류왕-진사왕-아신왕으로 이어지는 왕위계승에 대해 『일본서기』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침류왕이 죽자 아신왕이 나이가 어려 숙부인 진사가 왕위를 찬탈했다는 것이다.

관련사료 진사왕의 즉위는 근초고왕-근구수왕-침류왕으로 이어지던 왕위의 부자상속이 갑자기 형제상속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그리고 진사왕이 죽을 때의 기사를 보면 구원(狗原)으로 사냥을 갔다가 열흘 이상을 머물렀는데, 그곳의 행궁(行宮)에서 죽음을 맞았다고 되어 있다. 『일본서기』도 백제가 왜국에 예를 잃어버려 기각숙네(紀角宿禰) 등을 보내 꾸짖자 백제국이 진사왕을 죽여 사죄했고, 이에 아신을 왕으로 세웠다고 전하고 있다. 이렇게 전후 사정과 관련 기록을 볼 때, 진사왕의 죽음과 아신왕의 즉위 과정에는 모종의 정변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정변을 주도한 세력은 진사왕의 즉위에 불만을 품었던 세력들일 것이다. 즉, 침류왕 사후 아신을 지지하던 세력들이 진사왕을 살해하고, 이어 아신왕이 즉위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3 고구려와의 관계

백제 근초고왕(近肖古王, 재위 346~375)의 평양성 공격과 고구려 고국원왕(故國原王, 재위 331~371) 전사로 백제는 고구려와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그러나 소수림왕(小獸林王, 재위 371~384)이 체제를 정비하고 왕권을 강화해 백제에 공세적으로 나서기 시작하면서 양국은 아슬아슬한 세력 균형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리고 광개토왕(廣開土王, 재위 391~412)의 등장으로 이 균형은 깨지고 말았다.